

바르셀로나항만공사, 10월 26~29일 Port Summit 무역사절단 한국 2021 행사 개최

Port of Barcelona will celebrate Port Summit Trade Mission Korea 2021 from October 26th to 29th

-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두 번째 행사인 이번 Port Summit 무역사절단 행사는 전세계의 물류기업, 항만, 화주간 교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작년까지와는 달리 올해는 행사가 끝난 이후 연말까지 플랫폼 활성화를 유지하여 참여 기업 및 기관간 교류를 장려하고 협력 및 신규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바르셀로나항만공사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형식으로 무역사절단 한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Port Summit 무역사절단 한국 2021 행사는 바르셀로나항만을 주요 물류 허브로 하여 아시아와 유럽간 무역 증진을 위한 국제 비즈니스 행사가 될 것이다.

이번 무역사절단 행사는 국제 무역 증가,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업 및 기관간 전략적 제휴 강화를 목표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하여 한국 및 스페인 카탈루냐의 항만 물류 부문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바르셀로나항만공사 Manuel Galán 대외협력부서 이사는 "1년 이상 지속된 팬데믹 상황이 이제 끝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대면 형식의 무역사절단 행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항만 커뮤니티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바르셀로나항만공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Port Summit 무역사절단 행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기존의 대면 형식의 무역사절단을 개최할 예정이며 원래 2020년에 예정되어 있던 태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임을 밝혔다.

Port Summit 무역사절단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한국과 스페인 카탈루냐간 무역 증진 이외에도, 전세계 물류기업, 항만, 화주간의 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바르셀로나항만공사는 2020년과 비슷한 등록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 년 6 월 2 일

대외협력부서 이사는 “약 700 여명의 사전등록을 했고 웹비나당 평균 약 200 여명이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Port Summit 무역사절단 한국 2021 행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과 유럽간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바르셀로나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설립하는 합작법인이다. 새로 설립될 합작법인은 국제 무역 활성화를 위한 두 항만공사의 첫 번째 협력으로, 동북 아시아와 남유럽간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바르셀로나에서 안정적인 물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무역사절단 행사에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기관은 실시간 네트워킹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행사들과는 달리, 올해 개최될 행사는 참여 기업 및 기관간 협력 및 신규 비즈니스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플랫폼 활성화를 유지할 예정이다.

Port Summit 무역사절단 한국 2021 행사는 10 월 26 일부터 29 일까지 4 일간 진행되며, 컨퍼런스, 세미나 및 웹비나, 1 대 1 네트워킹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행사의 마지막 날은 1 대 1 네트워킹에 주력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바르셀로나항만공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관해 다룰 것이다.

Port Summit 무역사절단 한국 2021 행사는 Consorcio de la Zona Franca de Barcelona, Empresas Masiques, Freixenet, Idom y LeoProex 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다.

사진: Manuel Galán 대외협력부서 이사가 Port Summit 무역사절단 한국 2021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